

서동현 "바이 바이" ft. 이무진 가사

지친 몸을 이끌고, 기다리면
이윽고
모두가 모이는 곳 위에 서 있다
빠른 시간을 쫓아왔지만
아직 벅차 지금도 나는, 나는
퇴근 시간의 걸면, 하루의 끝에
서면
사람들 틈에 섞여 하루가 진다
빠른 귀가를 바라지만
아직까진 꽤 멀어 집은, 집은

괜히 요즘 들어 조금은
매일 그저 그런 모습을
숨기고 싶어서 오늘은
응시해, 빛 든 곳을
안녕 (안녕) 하며 (하며) 집으로
돌아가며, **bye-bye**

드리운 주황색, **bye-bye**
유리창문 밖에, **bye-bye**
고개 꼭 숙인 날 깨운
저기 해 질 녘 **sky**와 **high five**
늘 같은 곳에서 날 봐온, **bye-bye**
하루 지나간 시간아, **bye-bye**
저무는 석양에, **bye-bye**
분주한 서울 향해, **bye-bye**
따분하다고 느껴도
모든 건 언젠가 다 **lilac**
하루하루 내게 다가온, **bye-bye**
오늘아 잘 가, 샛주황색, **bye-bye**

월, 화, 수, 목, 금, 금 그 뒤에는
미운
태양이 날 반겨 그만 좀 떠올라라
있잖아 동현아, **mm**, 무진이 형아
궁금해, 왜 항상 **orange**색일까
석양은?

하루 중 유일하게
감성적 여지는 맘에
나뿐 아니라 저마다 인사

미소를 띤 사람이 많네
한 명 (한 명), 한 명 (한 명) 집으로
데려가 줘, **bye-bye**

드리운 주황색, **bye-bye**
유리창문 밖에, **bye-bye**
고개 꼭 숙인 날 깨운
저기 해 질 녘 **sky**와 **high five**
늘 같은 곳에서 날 봐온, **bye-bye**
하루 지나간 시간아, **bye-bye**
저무는 석양에, **bye-bye**
분주한 서울 향해, **bye-bye**
따분하다고 느껴도
모든 건 언젠가 다 **lilac**
하루하루 내게 다가온, **bye-bye**
오늘아 잘 가, 샛주황색, **bye-bye**